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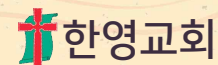
살롬! 추석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가위를 보내며 서로 전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이것은 한가위, 추석이 주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인해 누리는 기쁨이 담긴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채움을 통한 기쁨이 아닌 비움을 통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합니다. 이 기쁨은 풍성하지 않아도, 충만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풍성하거나 충만하지 않음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기쁨으로 충만한 매일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봄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해 질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일을 돌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은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할 충만한 기쁨은 자신의 일을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나의 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충만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추석 명절동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가족 간에 서로가 서로의 일을 돌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같은 사랑으로, 서로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자녀의 일을 돌보고, 부모의 일을 돌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이 마음이 가족을 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이웃을 돌보고, 함께 함으로,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기쁨의 시간을 누리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할 때, 매일 “한가위 같은” 풍성함과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한영교회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e 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1Chronicles 16:34

추석 가정예배 순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로의 부름

시편 65:9(새번역)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79장(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 주하나 님지으신모든 세계내마음 속에그리어볼 때
2. 숲속이 나뭇한산골짜기에서지저귀는저새소리들과
3. 주하나 님독생자아낌없이우리를 위해보내주셨네
4. 내주에 수세상에다시 올때저천국으로날인도하리

하늘의 별 울려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우주에창네
고요하게 흐르는시냇물은주님의 숨씨노래하도다
십자가에 피흘려죽으신주내모든 죄를대속하셨네
나겉손히 앞드려경배하며영원히 주를찬양하리라

후렴
주님의 높고위대하심을 내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위대하심을 내영혼이 찬양하네

기도

가족 중 한분

따사로운 햇살로 오곡백과를 익게 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처음이 존재했음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씨로 뿌려져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자라 저희의 손에 열매와 곡식으로 주어지기까지, 기다리시고 보살피신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마음에도 서로를 비취주는 햇살과도 같은 따스한 환대가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고유함과 다양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와 응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모든 이들에게 복되고 안전한 명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말씀

빌립보서 2:4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설 교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뒷면)

파송찬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주님 이날사랑하시네내모습이대로-받으셨네 -
사랑의주님 이날사랑하듯이나도 너를사랑하며섬기리 -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눔

예배를 마친 후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 함께
지켜요!

1. 명절인사는 모든 가족들에게 평등하게 합니다.
2. 결혼, 취직, 출산 등 곤란한 질문은 No!
3. 집안일 할 때는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4. 명절의 따뜻함을 고난받는 이웃과 함께 나눕니다.